

—書 評—

The Managerial Revolution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by James Burnham

蘇 眞 德

The Managerial Revolution (經營者革命)의 著者 James Burnham 은 1905年 시카고市에 出生하여, 1927年에 프린스턴大學을 卒業한 다음에 2年間 옥스후오드大學에 遊學하였다. 歸國하여 뉴욕大學에서 敎壇生活을 하는 동안에는 比較文學 數學 經濟學의 講義를 擔當하였다. 至今까지 世界的인 讀者를 가진 著作으로는 1941年의 The Managerial Revolution, 1943年의 The Machiavellians, 그리고 1947年의 The Struggle for the World 가 있다.

人間의 가장 崇高한 理想은 全人類의 自由롭고 平等한 全世界社會의 建設이다. 이와같은 目標은 純正한 世界政府의 樹立에 依하여 達成될 수 있으나 그것은 絶望的인 것이다. 現實의으로 일어나고 있는 現象은 共產主義者에 依한 全世界 征服인 蘇聯共和國의 世界聯合과 原子爆彈을 背景으로하는 美國이 指導하는 民主主義世界秩序이다. 오늘날 社會變革은 過去에 始作된 것이고 將次 完成될 것이라는 意味에서 過去를 吟味하여 將來에 投影함으로써 未來를 豫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著書 』 이와같은 思考方式을 엿볼 수 있으나 特히 「經營者革命」은 著書의 말에 依하면 『이 책은 아무것도 主張이나 辯明을 하는 것이 아니고, 描寫하고 明瞭하게 하는 것이며, 그 對象은 知識이고 情熱은 아니다. 이 책이 水晶같이 透明케 하는 idea 는 世界의 新支配階級이 經營者로 構成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實證的 科學의으로 未來의 世上을 豫言한 것이라고한다.

이 책은 各國에 일찍 紹介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別로 알려지지못한 것이므로 그 內容을 粗略하게나마 紹介할가 한다.

이 책은 菊版 285面 全17章으로 되어있으며, 1941年에 The John Day Co. Inc., New York 에서 出版되어 20版을 突破하고 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Chapter	Contents
I.	The Problem
II.	The World We Lived In
III.	The Theory of The Permanance of Capitalism
IV.	The Theory of the Proletarian Socialist Revolution
V.	The Struggle for Power
VI.	The Theory of The Managerial Revolution
VII.	Who Are The Managers ?
VIII.	The Managers Move Toward Social Dominance
IX.	The Economy of Managerial Society
X.	The Managers Shift The Logus of Sovereignty
XI.	Totalitrianism And Managerial Society
XII.	The World Policy of The Managers
XIII.	The Managerial Ideologies
XIV.	The Russian Way
XV.	The German Way
XVI.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XVII.	Objections

이제 全體的인 內容을 概觀하건대, 現在 社會的轉換期에 새로히 生成되고 있는 社會形態를 豫言하고 있다. 따라서 單純한 經濟理論은 아니고 歷史的・社會的理論이라고 할 수 있지만 將來의 社會形態에서 經營者의 役割은 크고 經營者의 生産經濟支配라는 事實은 生産經濟의 機構인 企業經營에 對한 깊은 經營學的考察이 基底가 되어있다. 理論展開의 出發點은 經營者가 生産手段의 現實的인 技術的過程의 直接的인 支配者라는 點에서 더 廣汎한 社會的支配者인 地位를 確保하게 되고, 從來의 資本家 代身 新支配階級으로 되어가는 社會的過程이 現在 轉換期의 實相이라고 보고있다. 그리고 經營者革命은 社會革命의 進行으로서 從來의 資本家社會로부터 經營者社會(Managerial Society)로의 轉換이며 戰爭은 이 社會革命의 發展에 있어서 하나의 從屬的인 現象에 不過하다.

Of course, each participant in every big war is careful to explain that it fights, not for any vulgar purpose of mere conquest, but for liberty, justice,

God, and the future of mankind. 이것이 戰爭目的에 對한 說明原則이며, 二次世界大戰도 例外는 아니며 客觀的으로는 하나의 社會革命의 進行過程의 逸話가 될 것이라고 한다.

社會革命이란 무엇이냐에 對하여는 다음과 같은 三構成要素를 提示하고 있다.

첫째는 가장 重要的 社會的(經濟的 및 政治的) 制度에 急激한(drastring) 變化가 생기는 것이다. 即 所有關係의 體系, 經濟生産運營의 方式, 法의 構成, 政治組織 및 政體의 型態가 날카롭게(sharply) 變革되어서 어느 程度의 修正이 아니고 種類가 다르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中世(封建)의 所有關係, 經濟生産의 方式, 法規, 政治組織은 모두 現代(資本家)의 所有關係, 法規, 政治組織으로 바뀌어졌다.

둘째는 社會制度의 여러가지 變化에 따라서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라도 文化制度 또는 世界와 宇宙에 있어서의 人間의 地位에 關하여 사람들의 支配的觀念에 變化가 생긴다. 文化的인 變化는 封建社會에서 近代 資本主義社會로의 變遷過程에서 敎會나 學校같은 文化制度의 形態와 地位의 改造에서 明確히 볼 수 있었고, 또 Renaissance 에 있어서 一般의 世界觀・人生觀・人間觀에 關한 完全한 變革으로서 確實히 볼 수 있었다.

셋째로 社會의 上層에서 權力과 特權의 大部分을 支配하고있던 集團의 變化다. 封建社會에서 封士와 家臣으로써 社會統治를 하던 領主에 對하여 貨幣에 依한 富裕와 生産工場과 賃金勞働者로써 社會統治를 하는 企業家와 銀行家가 繼承한다. 이것은 社會的인 支配層의 變化를 意味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社會革命의 存在에 對한 要素의 認識에 關하여는 多少 恣意的인 것이 있을지라도 社會的・文化的制度나 世界觀 社會의 支配力이 恒常 變化하고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舊形態의 社會와 新形態의 社會를 區分할 수 있는 明確한 區劃을 하는 것은 困難하다. 따라서 重要的 것은 歷史上의 變化事實보다도 變化의 程度라고 한다. 歷史理論이 如何든 社會制度, 信念, 社會集團의 相對的인 權力같은 것이 變化進도가 1400年以前의 5世紀에서 보다는 1400年에서 1600년까지의 2世紀에 있어서 比較되지 못할 程度로 빨랐다. 歷史家들은 現代의 시각에 關하여는 意見이 相異한지라도 中世의 社會와 現代의 社會와의 區別에는 異議가 없다. 어느 時代에는 다른 時代보다도 變化의 程度가 一層 急速하고 變化의 程度가 顯著한 時代가 所謂 革命의 時代라고 생각된다. 이 意味로는 現代의 急激한 社會形態의 轉

換期가 社會革命의 進行過程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大體로 中世末葉에 始作되고 1914年の 第一次世界大戰 까지 支配的이었던 資本主義的 社會形態 即 資本家社會 (capitalist society)로 부터 經營者社會로 轉換되고 있다.

資本家社會에서 經營者社會로 轉換하는 社會革命의 進行은 거기에 經濟・政治의 社會的・文化的・制度와 Ideology 의 急激한 變化가 있을뿐만 아니라 社會的支配者層이 從來의 資本家の 集團으로 부터 經營者라는 社會的集團으로 轉換되어간다는 것을 意味한다. 經營學的인 關聯에서 經營者가 어떻게 社會的支配層이 되고, 資本家が 後退하게되며, 都大體 經營者란 무엇인가, 그리고 經營者經濟의 特色을 버어남의 意見에 따라 要約하기로 한다.

社會的인 支配는 基礎的인 經濟關係에서 觀察하면 生産手段의 支配를 通하여 實現된다. 왜 그리냐하면 組織된 社會에서는 生活의 維持와 福祉에 必要한 各種의 財貨를 生産하는 手段은 技術的으로 社會的性格을 갖인 것이고 各個人은 自己가 使用하는 거의 全部를 自身이 生産할 수 없으므로 그 生産은 社會的過程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社會形態에서는 生産手段의 支配는 比較的으로 少數의 特定 集團의 掌中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支配(Control)는 法律的인 意味는 아니지만 所有權과 關聯된 所有의 事實에서 본 것이고 絶對的意味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程度의 制限이 隨伴되어도 支配라고 하는 바에는 決定的인 두가지 狀態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個人的인 힘을 通하여서든지 또는 複雜한 社會에서는 國家의 힘(警察, 裁判所, 軍隊)을 通하여서든지 所有物에 對하여 他人의 接近을 排除하는 힘을 가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所有物에서 生産되는 生産物의 分配를 優先的으로 받는다라는 것이다. 支配의 決定的狀態라고 생각되는 所有物에 對한 他人의 接近排除 即 接近에 對한 支配(Control over the Access)와 所有物에서 나오는 生産物에 對하여 優先的取扱(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Distribution of the Products)을 받는다라는 것이 生産手段에 適用되는 境遇에 生産手段의 支配가 社會的支配層이 된다는 것이다. 社會的支配者란 社會的으로 生産手段의 接近에 對한 支配者이고 同時에 그 生産手段으로 獲得되는 生産物分配의 優先的待遇者이다. 이와같은 支配者集團은 社會的인 權力과 富의 所有者일 것이다. 그리고 이 接近에 對한 支配와 分配의 優先的取扱이라는 支配의 二大要素는 實地로 相互間에 密接한 關係가 있다. 어느 時代에나 接近에 對한 支配者는 當然히 生産物分配에 對한 優先的待遇者이다. 따라서 分配에 對한 優先的取扱을 받을

여고 鬭爭하는 集團은 언제든지 接近에 對한 支配權을 獲得함으로써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 實際로도 社會的으로 많은 收入이 있는 集團은 接近에 對한 支配者이므로 社會的인 支配階級이 어떠한 集團인가 하는 것은 一般的으로 가장 많은 收入이 있는 集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接近에 對한 支配와 分配에 對한 優先的取扱이라는 支配의 二大要素는 同一한 것이 아니므로 兩者를 分析하여 보면, 兩者가 一致한다는 것이 一般的인 歷史的法則이지만 短期的으로는 分離된 境遇가 있을 수 있다. 資本家社會에서 經營者社會로 轉換하는 過渡的現象은 生産手段의 支配에 있어서 接近에 對한 支配와 分配에 對한 優先的取扱과가 分離된 點에서 發見된다. 버어남은 美國經營學者들이 말하는 所有와 支配의 分離에 對하여는 反對하고 所有와 支配는 어느때나 一致한다고 본다. 왜냐 하면 支配는 所有에 依하여 밀착됨되어 있는 것이고 支配없는 所有는 無意味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支配에 있어서 接近에 對한 支配와 分配에 對한 優先的取扱의 分離는 一時的으로 可能하다. 過渡期에 있어서 資本家は 尙今도 生産物의 分配에 對한 優先的待遇者이지만 經營者는 生産手段의 接近에 對한 支配者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支配에 있어서 決定的인 것은 分配에 對한 優先的取扱이 아니고 接近에 對한 支配라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의 이 過渡的分離는 將次 一致될 것이다. 여기에서 힘의 鬭爭이 있게 된다. 그러나 힘의 鬭爭의 最後 勝利者는 生産手段의 接近에 對한 支配者이다. 그 理由는 生産手段의 接近에 對한 支配가 生産物의 分配에 對한 優先的取扱을 決定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支配者는 同時에 所有者가 되게 된다. 經營者社會에서는 資本家社會의 資本家 代身 經營者가 所有와 支配의 一致된 支配者階級이 된다.

私企業에 있어서 資本家が 支配的地位로부터 後退하는 事實은 美國에서도 볼 수 있다. 美國이 資本主義國家라는 것은 生産手段의 支配가 所有權者인 資本家の 掌中에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美國은 歷史적으로나 法的으로도 겨우 數百의 大家族(主要한 것은 六十家族이라고 한다)의 掌中에 있다. 事實上 그 사람들은 株式이나 其他의 有價證券의 形式으로 다른 集團의 사람들 보다 大端히 많은 資本主義的所有權을 法的으로 所有하고있다. 그리고 現在 生産物의 分配에 對한 優先的取扱에 關한 支配가 그들에게 있다. 그네들이 使用할 수 있는 資金은 莫大하지만 事實上 分配에 對한 優先的取扱은 接近에 對한 支配에 從屬되고있다. 生産手段의 接近에 對한 支配에 關하여도 實地 大資本家の 掌中에서 分離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重大한 事態에는 아직 그네들에 依하여 處理될 것이다. 그러나 全體적으로 그 支配는 벌써 減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生産手段의 接近에 對한 支配로부터 資本家が 後退하는 事實은 大資本家が 生産에서 引退(Withdrawal from Production)하는 現象으로서 表示된다. 大資本家は 法的으로는 如前히 生産手段의 所有者이지만 實際적인 生活에서는 社會的支配의 窮極의 源泉이고 그 基盤이 되는 生産手段으로부터는 漸次 疏遠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巨大資本家の 大部分이 直接的인 産業의 生産에서 離脫되고 投資家が 된 時代에 始作된 것이다. 그러나 産業家에서 投資家로 轉換한 것은 生産手段의 支配에서 後退하였다고 볼 수 없고 反對로 그네들은 金融資本家的인 方法으로 從來보다도 廣範圍한 支配力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네들은 固有한 生産領域에서 뿐만 아니라 漸次 모든 經濟活動面의 積極的・直接的인 參加로부터 後退하여 간다. 이와같이 大資本家が 引退하는 結果의 하나는 生産手段의 法的所有者로부터 生産의 實際的過程에 對한 支配力이 漸次 다른 사람에게 移行하여가는 것이고, 數多한 實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란 經營者라는 것이다.

美國의 制度로서도 아직 經營者는 絶對적인 것은 아니고, 大資本家の 從屬의 立場에 있는 것은 事實이다. 資本主義의 制度의 關聯에서 보면 經營者는 資本家の 掌中에 있다. 極端으로 反抗적인 經營者는 追放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經營者는 大資本家の 委任者 또는 使用人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生産의 實際的 技術過程을 現實적으로 掌握하고 있는 經營者는 直接的인 支配가 아니고 支配의 委任이라고 하여도 實力을 가진 使用人은 漸次로 그 主人과 比較하여도 遜色없는 確固한 힘이 있음을 自覺하게 될 것이고, 그 主人이 無能하다는 事實을 알게 되면, 그 自覺은 表面化될 것이다. 生産手段은 社會의 生存을 하는 基礎이고, 社會的支配는 그 生産手段의 支配를 通하여 行하여지므로 單只 名目만이 아니라 現實적으로 그것을 支配하고 있는 經營者는 머지않아 資本家 代身 社會的支配者가 될 수 밖에 없다. 事實上 各産業部門에 經營者의 生産過程에 對하여 現實적으로 浸透된 支配力은 激增되고 있다. 反面에 資本家の 支配는 間接적이 되고, 稀薄하게 되고, 漸次 後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經營者支配는 아직 銀行 其他 金融에 依한 大資本家の 支配로 因하여 間接적인 制約은 있을지라도 많은 産業分野에서 現實化되고 있는 것은 美國의 實際調査에 依하여 證明되고 있는 것이다)(A. A. Berle and G. G. Means; The Mo-

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2).

經營者支配의 現實的인 進行過程은 私企業에 있어서 資本家が 生産手段의 接近에 對한 支配에서 後退한다는 事實에 依하여 볼 수 있다. 한거름 더 나아가서 私企業으로부터 政府企業에 視野를 擴大하면 經營者支配의 事實上的 進行을 一層 더 明確히 認識할 수 있다고 한다.

資本主義社會에서는 政府의 經濟的役割은 單只 第二義的인 것이다. 經濟上 政府는 主로 市場의 確保와 資本主義的 所有關係의 保全을 存續케 하고, 戰時 國際的 競爭 또는 國內的紛爭이 생길 때 必要에 따라서 援助 또는 鎮定하기 위하여서만 活動한다. 이것이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政府에 關한 一般的特徵이다. 그리고 經濟體制는 私的所有關係를 基盤으로 한 私企業의 體系이다. 따라서 國家로서는 必然的으로 制限的인 國家임이 原則이다. 그러나 이 傳統的인 資本主義的 政府의 役割은 各國에서 急激히 喪失되어감은 周知의 事實이다. 오히려 政府는 積極的으로 漸次 經濟的領域에 進出하고 있다. 政府의 經濟的進出은 進出된 部分만큼 資本主義的經濟關係의 領域에서 離脫된 것을 意味한다. 政府의 經濟的進出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政府가 既設部門을 買收하거나 新規로 新設을 하여서 經濟의 各分野를 擴充하는 一般的인 政府企業이고, 또 하나는 完수한 所有를 하지 않고 政府의 支配力을 私企業에 擴大하는 것이다. 두가지 方法으로 政府는 經濟的進出을 하게 되지만, 어떠한 方法에 依하였던지 政府가 日常 行하고있는 實地의 指導는 個人에게 委任된다. 그리고 政府企業에 對한 指導者인 個人은 個人企業에서 經營者라고 하는 사람들에 比較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政府企業과 私企業과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指導的地位가 生産手段의 資本主義的所有에 依存되지 않은 政府企業에서 經營者의 形態는 더욱 嚴密한 것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버어남의 經營者革命論의 經營者는 美國經營學이 意味하는 專門經營者와 同一한 것은 아니다.

現代에 있어서 長期的 訓練과 여러가지 熟練이 必要한 業務는 세가지로 區分될 수 있다.

第一은 建築業같이 近代의 方法으로는 아직 組織化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類型的 業務는 그것이 組織化되면 熟練勞動의 大部分은 消滅될 性質의 것이다.

第二는 物理學이나 工學等의 精密한 訓練이 必要한 業務다. 이 種類的 業務는 最近 重要하게 되었다. 왜냐 하면 原始的技術을 使用하던 時期에는 熟練者는 必要 없었지만 現代의인 産業部門에서는 熟練者는 不可缺의 存立要件이 되었기 때문

이다.

第三은 生産過程의 技術的 指導와 調整(The technical Direction and Co-ordination of the Process of Production)이다. 分化된 業務는 반드시 組織化되고 調整化되어서 諸種의 原材料, 器具, 機械, 工場, 勞動者가 適當한 場所와 時間에 그리고 適當한 數量으로 活用되고 結合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生産過程의 技術的 指導와 調整의 業務는 實로 高度의 專門化된 機能이 되고있다.

第三의 類型인 生産過程의 指導와 調整이라는 熟練의 業務는 普通 技術者의 技術은 아니다. 또 科學者의 科學과도 다른 管理의 內容이 되는 것이며, 이 熟練의 機能의 擔當者를 經營者라고 한다.

經營者는 現代社會에서는 벌써 重要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法的形態이거나 財務的形態이거나 個人이거나 會社이거나 政府이거나를 莫論하고 生産의 實際的過程을 技術的側面에서 實地 管理하고 있는者를 意味하고 있다. 이 意味의 經營者는 個人이 아니고 集團概念이라고 보아야 된다.

經營者革命은 現在 進行過程에 있고 아직 完成된 形態로 示現된 것은 아니다. 經營者革命이 完成되면 從來의 資本家社會 代身 純粹한 經營者社會가 될 것이며 그 經濟機構는 重要한 生産手段이 完全히 國家의 所有가 되고 그 支配下에 있는 境遇에 純粹한 形態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와같은 經濟體制은 資本主義는 아니고 國家資本主義 또는 國家社會主義라는 經濟體制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國家資本主義라는 名稱이 適當치않은 것은 主要生産手段이 國有가 되는 經濟를 資本主義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經營者經濟(Managerial Economy)에는 資本家の 支配는 없고 生産手段의 國有로 因하여 資本家階級은 消滅되기 때문이다.

國家社會主義라는 名稱도 傳統的 歷史의 用法으로는 階級없는 社會를 社會主義라고 하므로 適當치 못하다. 經營者經濟에는 經營者集團이라는 特殊階級이 있는 社會이고 經營者集團은 國家를 通하여 國家가 所有하는 生産手段은 支配할 수 있고 生産物分配에 對하여 優先的取扱을 받음으로써 團體的擄取를 하게된다.

經營者經濟는 經營者라는 支配階級이 있는 經濟이다. 그리고 一種의 擄取經濟라고 한다.

擄取經濟라고 함은 어느 集團이 다른 集團보다도 經濟上의 生産物分配을 相對的으로 많이 받는다는 意味다. 個人의 道德的判斷이나 心理的動機와는 다르게

不平等한 分配가 생기는 過程을 말하며 모든 階級經濟는 이 意味에서는 搾取經濟가 된다.

經營者經濟에서는 資本은 國家가 供給하므로 私的資本으로서 利益獲得에는 使用되지 않을 것이고, 經營者는 國家機關의 現實的支配에 依하여 生産手段을 支配한다. 따라서 所有權의 資本主義的形態와는 相異하지만 政治經濟的機構에 順應하여 分配의 優先的取扱을 받게 된다. 그리고 分配의 優先的取扱은 名目的收入은 적을지라도 經營者는 國家에 奉仕하는데 對하여 自動車, 住宅, 食物, 被服, 其他의 形態로 特權이 附與된다. 따라서 優先的取扱은 形態나 方法이 問題가 아니고 事實自體를 말하는 것이다.

經營者經濟의 機構는 國家의 所有와 經營者에 依한 主要生産手段의 支配가 基礎로 되어있으므로 個人的인 資本主義的 私有權은 消滅된다. 그리고 利潤追求는 必然的인 것이 아니다. 産業이 貨幣利益에 依存하고 있는 것은 私企業的 資本主義的인 特殊한 經濟關係에 緣由한 것이고 그 關係가 消滅하면 利潤도 必要없게 된다. 市場의 自由競争에 依하지 않고도 各産業은 國家의 集中的 指導에 依하여 利潤이라는 別個의 目的에 對하여 統制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經營者經濟는 決코 利潤體系는 아니다. 經營者經濟는 資本家經濟에 比較하면 貨幣의 役割은 顯著히 制限된다. 貨幣는 資本家經濟에서 決定的役割을 하는데 對하여 個人的資本으로서 機能하지 않고 交換去來에서도 貨幣의 使用은 制限된다. 物物交換制나 貨幣의 支拂이 隨件되지 않는 消費財나 用役의 比率은, 抽象化된 交換價值로서 取扱되지 않고 一定한 必要를 充足시키기에 適合한 特別한 實體的存在로서 取扱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經營者經濟에서는 資本家が 消滅하는 同時에 自由勞動者(Proletariat)의 地位도 顯著히 變化하게 된다. 勞動者의 自由란 資本主義에서는 怪常한 自由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生産手段의 所有로부터의 自由이다. 이 自由는 經營者經濟에서도 아무런 變化가 없다. 왜냐 하면 經營者經濟에서는 資本家 代身 經營者가 國家를 通하여 實地로 生産手段을 支配하므로 勞動者는 從前과 다를 것이 없다. 다음에는 資本家經濟에서 勞動者의 自由란 그네들이 所定の 勞動價格에 對하여 勞動을 賣却하는가 또는 안하는가의 自由를 意味한다. 그러나 이 自由의 可能性은 經營者經濟에서는 事情이 다르다. 國家가 唯一한 大雇傭主로서 存在할 뿐이고 모든 것이 市場去來의 自由에 放任되어있지 않다.

經營者經濟에서는 資本主義的形態의 經濟恐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總人口에 對하여 衣食住等 生活必需品를 包含한 財貨의 生産이 具體的으로 增大하며 平均的으로 大衆의 物의 生活水準이 多少 높아질 것이다. 또 生産의 一般過程에 對하여 相當히 計劃化가 可能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計劃化란 반드시 社會的인 美德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가지 殘忍이 殺人하기 위하여서나 또는 食糧을 増産하기 위하여서나 使用될 수 있드시 人間性を 解放하기 위한 計劃도 있고 人間을 奴隸化하기 위한 計劃도 있을 것이다.

머어남에 依하면 經營者의 計劃의 目的은 不幸히도 戰爭의 一層 效果的인 遂行과 新支配階級の 權力和 特權의 支持하는 것이다.

經營者社會가 아무리 科學的으로 管理되어도 如前히 階級社會이고 權力者와 無權力者, 特權者와 被壓迫者, 支配者와 被支配者가 存在하고 人類歷史에서 되풀이하는 特權의 公職을 둘러싸고 鬭爭이 繼續된다고 한다.

以上에 依하여 經營者社會의 特徵과 缺點을 검각할 수 있겠지만 經營者經濟의 一般的 性格에서 經營者集團에 特有한 ideology 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個人的利益에 對하여 國家, 國民, 民族의 利益이 強調되고, 貨幣보다 勞動과 義務가 重視되고, 個人企業에 對하여 社會的企業이 그리고 自由와 創造性에 對하여 計劃性이 代位된다. 權利와 自然權 代身 義務와 秩序와 訓練이 要求된다.

經營者社會의 初期에는 더 積極的인 要素도 導入될 것이다. 生成初期의 資本主義에서와도 같이 그리고 成熟함에 따라서 忘却될 運命과 希望과 犧牲과 힘이 自由에 對한 젊은 情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經營者社會의 內容을 밝히기 위하여 性急한 나머지 資本主義가 社會主義로 轉換되지않는다는 主張을 看過하였기에 末尾에 要旨를 引用하여 둔다.

The first assumption is put by Marxists (and others) in this way: that socialism is the "only alternative," to capitalism. They then assert, in effect, the following syllogism: since capitalism is not going to last (which we have granted) and since socialism is the only alternative to capitalism, therefore socialism is to come. The syllogism is perfectly valid, but conclusion is not necessarily true unless the second premise is true: and that is just the problem in dispute. (James Furnham; op. cit. P. 41)